

英語 學習辭典 比較 노트 —學校文法の 觀點에서

文 龍
(英語教育科)

I

그 수가 꽤 많은 영영사전 가운데서 특히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와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편찬된 사전이다. 원래 Hornby의 편찬에 의한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가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1948년인데 그후 1963년과 1974년에 개정판이 나왔다가 1989년에 면목을 일신한 4판이 나왔고, 1978년에 선을 보인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는 1987년에 역시 대폭적인 수정과 가필을 거친 개정판이 나왔다.

이 두 사전이외에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사전에 Collins의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1987)가 있다.

이 글은 특히 학교문법이란 관점에서 새로 개정된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1989) (다음부터는 *OALD*로, 그 3판(1974)은 *OALD*¹로 표기)와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1987) (다음부터는 *LDCE*로, 그 초판(1978)은 *LDCE*¹로 표기) 및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1987) (다음부터는 *CELD*)에 나와 있는 문법 기술의 특성을 검토 비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밖의 사전에 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글이 특히 학교문법이란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영어 학습사전을 검토 비교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와 이유에 근거를 둔다.

(1) (발음과 품사의 명서, 어원, 의미등의 기재와 설명은 사전이 할 일이지만 문법의 기술은 사전이 할 일이 아니라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특히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은 문법상의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단단한 한 몫을 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언급한 영어사전들은 다른 영어사전과 달리 어휘의 문법상의 특성의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¹⁾

(3)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꾸며지는 영한사전에도 문법상의 정보는 좀 더 체계적이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영어사전의 비교와 검토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II.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어휘별 문법상의 기술이 필요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근한 예를 들어본다.

이 글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론문법에서는 어쨌든) 학교문법에서는 문형 내지 동사형의 설정은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가령 다음과 같은 동사형의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1. 주어 + 타동사 + 전치사구 + that 절

eg. The consultant recommended to the employers that new salary scale (should) be introduced.

2. 주어 + 타동사 + 동명사

eg. I recommend meeting him first.

3. 주어 + 타동사 + (대)명사 + to 부정사

eg. I wouldn't recommend you to go there alone.

동사형 (1)을 만드는 동사로는 recommend이외에 suggest, announce, explain등이 있고, (2)를 만드는 동사로는 suggest, enjoy, forget, hate, prefer등이 있다.

이와 같은 동사형의 설정이나 예시는 중급수준의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나 문법책에 나옴직하다. 하지만 문법책은 동사형 (1) (2)를 만드는 모든 동사를 살살히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를 제시한 다음에는 “등등(etc.)”이란 단서를 붙인다. Native speaker라면 그는 이미 개별동사의 통사상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문법지식을 명시적으로 기술한 동사형의 분류 내지 설정과 한정된 예의 제시 이상은 필요하지가 않다. 하지만

1) LDCE의 Introduction부분에는 LDCE¹에는 없던 “Grammar and the Dictionary” 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When we use a word, we need to know both its meaning and its grammar”란 말과 함께, recall과 reminisce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통사상의 특성을 알아야하고 그런 통사상의 특성이 사전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다.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자가 이 “등등”에 속하는 동사를 익히기 위해서는 그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는 recommend와 똑같이 suggest도 위에서 언급한 동사형 (1) (2)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사형 (3)에 준하는 다음 (4)같은 비문을 번번히 만들 것이다.

4. *I wouldn't suggest you to go there alone.

또한 command와 force가 똑같이 동사형 (3)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command가 만들 수 있는 동사형인 (5)를 근거로 (6)과 같은 비문도 만든다.

5. He commanded that the gate be opened.

6. *He forced that the gate be opened.

위에서와 같은 구조상의 그릇된 유추이외에 비문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는 두 낱말이 갖는 의미상의 유사성도 있다. Recall과 reminisce는 똑같이 “상기한다”는 뜻을 갖는다. 그러기 때문에 학습자는 recall을 reminisce로 대치해서 비문을 만들기가 쉽다.

7. The two old friends talked for hours, recalling their schooldays.

8. *The two old friends talked for hours, reminiscing their schooldays.

말할것 없이 이와 같은 오류를 가능한 한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도의 하나는 사전에 동사마다 그 동사가 만드는 동사형을 명시하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말은 명사의 가산성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영문법 책을 펼쳐보면 대개의 영문법 책에는 영어에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있다는 설명과 얼마간의 예가 나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영문법 책에 나와 있는 한정된 예만 갖고는 가령 다음과 같은 명사가 불가산명사로만 쓰이는지 또는 가산명사로도 쓰이는지를 유추하기가 어렵다.

hope, tension, anatomy, breath, caution, ...

단적으로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명사의 가산성과 관련된 특성을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습득할 수 있는 첩경은 사전이 명사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일일이 기술해 주는 일이다.

OALD¹는 바로 이 개별동사가 만드는 동사형과 개별명사가 지니는 가산성여부의 기술을 특성으로 삼고 있는 사전이다.²⁾ 즉 OALD¹는 동사의 경우 51개의 동사형이 설정되어 그것이

2) 실상 이와 같은 문법사항의 기제는 (OALD¹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기 보다) 이 사전의 전신인 (Hornby가 일본의 영어학습자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아 펴낸) *Idiomatic and Syntactic English Dictionary* (1942)에서 선을 보였던 획기적인 시도로, 이런 착상이 가능했던 것은 Hornby가 다년간 일본학생에게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숫자와 alphabet를 합친 기호로 기술되어 있고, 명사의 경우는 C와 U의 기호로 가산성 여부를 밝히고 있다.

한편 LDCE¹가 선을 보인 것은 1978년이다.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교재 출판에 전통이 있는 Longman이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사전을 기획하고 어휘별 문법상 특성의 기술을 반영키로 방침을 정했을 때, LDCE¹가 일단 OALD¹을 참고하고 그보다 더 나은 문법 기술 방식을 지향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LDCE¹가 얼마나 의욕적이었나하는 것은 통사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20개의 alphabet를 포함하는 35개의 기호와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수자 및 alphabet 소문자 3개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LDCE¹에는 동사형 말고도 명사형과 형용사형이 제시되어 있고 명사의 특성을 설명하는데만 적어도 9개의 기호가 쓰이고 있다. 동사의 경우도 그 기술이 동사형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 Wv4와 Wv5는 각각 -ing형과 -ed형이 형용사로도 쓰이는 동사를 명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 혁신성과 의욕을 높이 평가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지만) OALD¹과 LDCE¹이 기재하고 있는 문법사항의 내용과 그 기술 방식에 사전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ALD¹과 LDCE¹은 면목을 일신한 개정판이 나오으로써 이제는 구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글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두 사전의 개정판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판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을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OALD¹과 LDCE¹이 안고 있던 문제점(의 일단)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³⁾

1. OALD¹

1) 51개의 동사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51개란 수는 동사형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수이고, 이 51개의 동사형이 alphabet와 수자로 자의(恣意)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동사형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편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52개의 동사형가운데는 조동사의 용법과 관련된 것(VP 5, VP 7B),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드러내는 것(VP 4A, VP 4F, VP 16A)등 슬어동사의 통사상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도 있다.

3) OALD¹과 LDCE¹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한 참고문헌으로는 “英語辭典の比較と分析”(1981)이 있다. 여기에 적는 문제점은 필자의 관점에서 이의 일부를 간추리고 거기에 필자의 의견을 가미한 것이다.

2) C와 U란 2분법적인 두 가지 기호만으로는 예를 들어 부정관사 a/an은 부가할 수 있지만 수사 one, two, three... 등 수사는 부가할 수 없는 일부 명사가 나타내는 가산성의 상대성을 가려내지 못한다.

2. LDCE¹

1) 문법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역시 자의적인 문자와 수자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복잡한 기호를 통해서 어휘마다 문법상의 특성을 기술하는 경우 이와 같은 기술은 exhaustive하여야 하고 기술방식이 해당되는 모든 어휘에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

(지면상 아주 한정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 [Wv5]는 동사가운데 -ed형이 형용사로도 쓰이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그런데 conquer에는 a conquered city란 예와 함께 [Wv5]가 표시되어 있지만 bake의 경우는 그 -ed형이 baked potatoes등에서 흔히 쓰이지만 아무 표시도 없다.

(b) [P]는 "the + 형용사"가 복수명사적으로도 쓰인다는 뜻인데 poor, rich에는 [P]가 표시되어 있지만 brave의 항에는 예는 나와 있는데 [P]표시가 없고 miserable의 경우는 예도 [P]표시도 보이지 않는다.

(c) consider는 [X (to be) 1, 7]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 기호는 consider가 이른바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필요로 하며 목적보어로는 명사구와 형용사구가 쓰이고, 목적어와 목적보어사이의 to be는 수의적이란 뜻인데, 그 통사상 특성이 비슷할 터인데도 think나 suppose는 [X 1, 7]로만 기술되어 있고 to be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어휘의 통사상 특성이 그저 예문을 통해서 산발적이며 비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왔던 종래의 전통적인 영영사전에서는 기술상의 exhaustiveness는 차라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통사상 특성을 기호화하여 체계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어떤 사항이 누락되면 그 특성의 기술이 <누락된> 어휘에 대해서는 그 특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중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 어느 사전보다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전이 LDCE¹이다.

그 기술이 일관적이지 못한 예를 좀더 들어본다.

introduce A to B 가 하나의 구동사로 독립된 항목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서 explain A to B 는 explain 의 항목에서 그 특성의 일부로 설명이 되어 있을 뿐이다.

regard A as B 나 describe A as B 도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recognize him as king이란 예까지 제시되어 있건만 recognize A as...는 그저 recognize의 특성의 일부([T1 (as)])로 기술되어 있고, consider도 비슷한 특성을 가졌건만 consider에는 recognize에 준하는 기호설명도 예문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 예문이 보여주듯이 spray와 spread는 비슷한 구문을 만든다.

spray the wall with paint
 spray paint on the wall
 spread bread with butter
 spread butter on bread

그런데 spray는 위의 두 예문을 만드는 특성이 두개의 독립된 기호인 [X9 esp. on] 과 [T1 (with)]로 제시되어 있고, spread는 [D1+ with/on]으로 기술되어 있다.

3) 사전이 문법사항을 기재할 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술내용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LDCE¹에는 어휘의 통사상 특성을 기술하는 기호의 하나로 [E]가 있는데, 어순상 명사를 후위수식한다는 근거에서 다음 예에서의 elect, old, ago가 [E]로 묶여 있다.

the president elect
 three years old
 three years ago

그 기능이 서로 너무나도 다른 점을 감안할 때 position이란 표면구조에 집착해서 이 세 낱말을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She became President.의 become이나 She seems (to be) sad.의 seem과 She drives well. It cost \$5.에서 쓰인 drive, cost를 하나의 [L]로 묶고 있다.

이 [L]은 linking verb의 첫 문자를 판듯 싶은데 종래의 linking verb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시킨 느낌을 준다.⁴⁾

이제 OALD¹과 LDCE¹를 개정한 OALD와 LDCE를 살펴보자.

우선 LDCE의 경우.

LDCE¹가 채택한 복잡한 기호체계가 일반 사용자들에게 반드시 편리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4) 이 개정판에서는 다음에서도 언급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기호방식을 바꾸고 또 한편으로는 해당 문법사항의 기술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위에서 지적한 결점이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가령 동사 deny(1) (= to declare untrue)의 통사상 특성은 T1, 4, 5; V3로, find(1) (=to discover, esp. by searching)은 Wv6; T1, D1, 6a; V4로 기술이 되어 있다.

LDCE에서는 이런 기술방식은 폐기되었다. 그리고 LDCE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sophisticated grammar codes in the first edition of the LDCE (1978) were well received by those particularly interested in grammar, but many users found them difficult to remember.

LDCE 자신이 LDCE¹의 기술방식이 일반 사용자가 익히기에 복잡하고 불편했던 것을 인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LDCE에는 앞서 인용했던 deny(1)가 (T)와 <+ V -ng / that>, <+obj + to V>로, find (1)은 (T)와 <+obj(i) + obj(d)>, <+obj + V -ing>, <+obj + adj>으로 그 기술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LDCE는 동사형의 경우 12개의 기호와 10개의 숫자대신에 세계의 기본적인 동사의 유형을 나타내는 I(=intransitive verb), T(=transitive verb), L(=linking verb)란 세계의 기호이외에는 동사가 만드는 동사형을 16개 정도 설정하여 동사마다 이 동사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OALD¹를 개정한 OALD는 어떠한가. (OALD¹는 51개의 동사형을 자의적인 숫자와 alphabet를 합친 기호로 표시하였었다.)

OALD 역시 이와 같은 표기방식은 폐기되고 있다. 즉 OALD는 동사형을 32개로 줄여 동사마다 이 동사형의 구조를 (자의적이 아닌) 약자로 표시해 놓고 있다.⁵⁾ 다시 말해서

5) 51개의 동사형이 제시된 OALD¹와 그것이 32개로 준 OALD가 드러내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OALD¹에는 다음 (1)과 (2)가 동사형 VP 2E (Subject + Vi + Present Participle)로 묶이고 있다.

1. The children came running (to meet us).
2. (Do you like to) go dancing?

OALD에서는 come running과 go dancing을 동일한 동사형으로 보는 시각을 수정하여 (1)은 어떤 특정한 동사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2)는 go for a walk/ swim등을 주 예문으로 삼는 Ipr로 다루고 있다.

OALD¹의 VP 4A, VP 4F, VP 16A가 OALD에서는 삭제되고 있다. 이런 동사형은 원래가 동사 자체의 특성보다 부사적으로 쓰인 부정사의 용법을 드러내는 구문으로, 당초 동사형으로 설정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조동사의 용법에 초점을 맞춘 VP 5와 VP 7B도 역시 삭제되고 있다.

*OALD*¹ 에는 find(1)가 만드는 동사형이 VP 6A, 12 B, 13 B로 표시되었었는데 *OALD*에서는 Tn, Tn-pr, Tn-p, Cn-a; Tn, Tn-pr, Dn-n, Dn-pr...로 표시법이 바뀌고 있다. (이런 약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Tn-pr는 transitive + noun + prepositional phrase를, Cn-a는 complex transitive + noun+ adjective를 나타낸다.)

개정된 이 *OALD*과 *LDCE*의 기술방식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 우선 동사의 통사상 특성과 관련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사의 “유형” 자체에 대한 두 사전의 입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LDCE*에는 약 20개의 동사형이 제시되어 있고 *OALD*에는 32개의 동사형이 제시되어 있어 차이가 발견되는데, 일례로 *OALD*는 다음과 같이 “동사 + 명사+ to 부정사” 구문을 셋으로 분류해서 다른 약자로 표시하고 있다.

(a) I expect the parcel to arrive tomorrow.—Tnt (transitive verb + noun + to infinitive)

(b) The thief forced Jane to hand over the money.—Cn-t (complex-transitive + noun + to infinitive)

(c) The director warned the actors not to be late.—Dn-t (double -transitive + noun + to infinitive)

한편 *LDCE*는 이 세 구문을 묶어 “v + obj + to v”로 그 통사상 특성의 기술을 간소화하고 있다.

*OALD*가 위에 제시한 예문에서 expect를 transitive verb로, force를 complex transitive verb로, warn을 ditransitive verb로 구분한 것은 (a)에서는 the parcel + to arrive tomorrow 전체를 목적어로, (b)에서는 Jane을 목적어로 to hand over the money를 보어로, 그리고 (c)에서는 the actors 와 (not) to be late를 두개의 목적어로 본다는 하나의 문법이론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OALD*의 동사형을 나타내는 약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용자는 이와 같은 특정한 문법이론을 알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역시 이와 같은 동사형과 관련된 문법이론은 사전보다는 문법의 분야에서 다루어져

그밖에도 *OALD*는 *OALD*¹의 VP 3B, 4D, 4E, 18C, 25를 없앴고 VP 24A, 24B, 24C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VP 6C, 6D 및 6E를, VP 8과 VP 10을, VP14와 15A를, VP 19A와 19B를, VP 20과 21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VP 17 (subject + Vt + Noun + to Inf.)은 Tnt (transitive verb + noun + to inf), Cnt (complex-transitive verb + noun+ to inf), Dnt (double-transitive verb + noun+ to inf)로 세분하고 있다.

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위의 세 동사형의 경우, 사전에서의 동사형의 기술방식은 *OALD*의 방식보다 표면구조를 근거로 삼은 *LDCE*의 방식이 차라리 학습자의 부담이 적고 간편해 보인다.

다음은 명사의 경우.

명사의 가산성과 관련된 문법사항을 C와 U로 명사마다 일일이 명시한 최초의 사전이 Hornby의 *OALD*¹였다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예를 들어 *OALD*¹에는 *silence*의 경우 *condition of being quiet or silent*의 정의 앞에는 U가, *period during which Sb is silent*의 정의 앞에는 C가 표시되어 있다.

*OALD*에는 그 기술이 더 다듬어져 C, U 이외에 CGP (countable group noun)과 GP (group noun)표시가 추가되어 있다.

한편 1978년에 첫선을 보인 *LDCE*¹는 *OALD*¹의 기술방식을 따르되 그 방식을 더욱 정밀화시켜 다음 7개의 기호가 쓰였었다.

C, GC, GU, P, R, S, U

이와 같은 일곱가지의 명사의 세분화는 명사의 가산성이 명쾌히 둘로 양분만 할 수는 없는 상대적인 continuum을 이루고 있음을 밝혀준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위에 나오는 기호 S는 *nouns that are special singular nouns and can be used with a or an, but not with one, and that cannot be counted, and have no plural form*을 나타내고, *think, babble, look(=appearance), say,...* 등이 S에 속한다.

*LDCE*에는 이 일곱가지의 하위분류가 다음과 같이 더욱 세분되고 있다.

1. no code 2. C 3. U 4. P 5. S 6. the 7. the 8. the + P 9. (the) U 10. sing / pl.

그런데 명사의 통사상 특성을 전제로 하는 기술이 이렇게 다듬어져 있으면서도 외국어로서의 영어학습자에게 만족스럽지 않는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산성의 여부에 따라 그 의미나 용법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비근한 예가 되는 *glass: a glass, fire: a fire, cloth: a cloth*나 *silence: a silence, pleasure: a pleasure* 등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의 예를 *hope*에서 찾아보자.

*OALD*에 나와 있는 *hope*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hope*(2)이라는 생략.)

hope: 1. C,U desire for something to happen, combined with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eg. cherish a/ the *hope* that he will recover

She has high *hopes*.

Don't give up *hope* yet.

hope에 관한 한은 LDCE의 설명도 OALD와 아주 비슷하다.

hope: 1. C;U the expectation that something will happen as one wishes

이와 같은 설명과 다음 예문(1-3)을 대조해보자.

다음 (1-3)에서 만약 (1)에서는 역시 (a)가 바람직하고 (2-3)에서는 (b)가 바람직하다면 두 사전이 택하고 있는 hope(1)의 "C,U"표시는 (1-3)의 (a)와 (b)는 어느 쪽을 택해도 좋다는 오해를 유발한다.

1. (a) Don't give up *hope* yet.
(b) Don't give up a *hope* yet.
2. (a) cherish *hope* that he will recover
(b) cherish a *hope* that he will recover
3. (a) She has high *hope*.
(b) She has high *hopes*.

또한 이런 경우 "C,U" 표시는 "C", "U" 표시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Hope와 a hope (또는 hopes)의 미묘한 차이는 LDCE나 OALD보다 다음과 같은 CELD의 설명이 분명해 보인다.

Hope is a feeling of desire and expectation that things will go well in the future.

eg. She never completely gave up *hope*.

If something raises your *hopes*, it gives you a stronger feeling that the future will be as you want it to be.

eg. The new agreement raises *hopes* for conditions of prosperity and harmony.

A *hope* is something that you desire.

eg. But it was a forlorn *hope*

즉 CELD에 의하면 hope는 "희망"이란 감정을 나타내고, 그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경우 hopes가 쓰이고 a hope는 희망의 대상을 가리키거나 희망의 대상을 전제로 한다.

기술의 일관성이란 문제점과 관련된 예도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OALD¹에는 coffee가 the drink로 풀이되고 있고 그런 어의 설명앞에 C,U표시가 나와 있으며 three black coffees, three cups of coffee가 예로 나와 있었다. The drink란 어의 설명앞에 붙어 있

는 C, U표시는 (hope가 그랬듯이) 어떤 문맥에서나 coffee는 가산명사로 써도 좋고 불가산 명사로 써도 좋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OALD를 보면 이 coffee의 설명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져 있다.

- coffee: (a) U. drink made by adding hot water to ground or powdered coffee
 eg. a cup of coffee, make some coffee
 (b) C. cup of this drink
 eg. two black / white coffees

똑같이 whisky도 strong alcoholic drink는 U로, Two whiskies, please.에서 처럼 glass of whisky를 뜻하는 whisky앞에는 C가 각각 표시되어 있다. 똑같이 sugar도 U와 C로 나뉘어져 설명이 되어 있고 C로 표시된 sugar는 cube or teaspoonful of sugar로 설명이 나와 있다. 그러나 cocoa는 그 특성이 coffee와 똑같으려면 그저 C, U로 묶여 있다. Water나 milk에는 U표시만 나와있다. 이는 물론 two glasses of water/ milk를 * two waters/ milks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LDCE의 경우는 또 사정이 다르다. LDCE는 whisky에 한해서 OALD와 똑 같이 그 특성을 U와 C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있는데 coffee는 C, U로 그 특성을 묶고 있고, sugar나 cocoa는 U로만 표시하고 있다.

영어 학습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phrasal verb에 대해서도 언급해보자. Phrasal verb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분류가 가능한데 일단 Quirk and Greenbaum (1973)이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분류는 일반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분류로 보여진다.

6)

(a) 자동사적 구동사

6) 사전에 따라 phrasal verb의 분류는 여러가지로 다른데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 (ODCIE)는 phrasal verb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intransitive	transitive
particle	A1	B1
preposition	A2	B2
part + prep	A3	B3

그런가 하면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 (LDPV)은 phrasal verb를 일단 다음과 같이 크게 셋으로 대별한 다음 다시 이 셋을 25 type로 세분하고 있다.

- verb + adverb
- verb + preposition
- verb + adverb + preposition

eg. The tank *blew up*.

(b) 타동사적 구동사

eg. They *called off* the strike.

(c) 전치사 수반동사

eg. They *called on* the man.

(d) 전치사 수반 구동사

eg. We *look forward to* your visit.

영어 학습자에게 phrasal verb가 부담이 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phrasal verb가 갖는 의미의 idiomaticity 때문이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타동사적 구동사와 전치사 수반동사의 구분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call off가 전자에 속하는 것은 단적으로 off가 particle이어서 목적어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고, call on이 후자에 속하는 것은 on이 전치사이어서 목적어 다음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call off의 off는 particle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일까? 목적어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particle이라고 불리우는 것일까? Call on의 on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일까? 또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치사인 것일까? 이와 같이 순환론에 빠질수 있는 통사상의 특성은 영어 학습자에게 학습상의 부담을 준다. 말할 것 없이 웬만한 문법서에는 타동사적 구동사와 전치사 수반동사의 통사상의 차이와 약간의 예가 나와 있기 마련이지만, 사전이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와 같은 통사상의 구분은 (앞서 언급한 동사형이나 명사의 가산성이 그러듯이) phrasal verb별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Phrasal verb의 통사상 특성에 관한 한 LDCE는 (초판과 개정판이) OALD보다 그 기술방식이 자상하다.

초판과 비교해 볼 때는 LDCE의 개정판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드러나보인다.

(1) LDCE¹에서는 그 독립성이 강조되기 위해서 phrasal verb는 일반 어휘와 똑같이 독립된 entry로 다루어졌었다. 그러니까 see off는 예를 들어 seed 다음에 나오고 see through는 seethe 다음에 나왔다. LDCE에서는 이런 방침이 폐기되어 본 동사의 entry의 일부로 순서가 환원되고 있다.

(2) 동사형이 그랬던 것 처럼 (복잡한 alphabet과 숫자의 조합에 의한 기호표기를 없애고) 그 통사상 특성의 기술방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turn on: phr v [T] (turn *sthg*↔on)

get off (= send off): [T] (get *sthg* off)

turn on의 경우 (sthg→on)은 on이 목적어 전후에 다 올수 있다는 표시이고, (get sthg off)는 send의 의미를 갖는 경우 off는 목적어 다음에만 위치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LDCE¹에서 phrasal verb를 v adv 또는 v prep로 나누어서 기술하던 방식도 폐기되었다.

LDCE¹과 LDCE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도 눈에 띈다. 즉 LDCE¹에는 decide on이 phrasal verb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의미가 to decide in favor of로 풀이되고 있는데, LDCE에는 동사 decide가 We've decided on Paris for our next holiday.란 예문과 더불어 (I (on)) (즉 on을 수반할 수 있는 자동사)로 설명이 되어 있다. LDCE는 decide on을 phrasal verb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똑같은 이유로 rely on도 phrasal verb에서 제외되고 있다.⁷⁾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phrasal verb의 의미상 특징은 그 idiomaticity에 있다. Phrasal verb를 구성하는 낱말의 의미의 총화로는 phrasal verb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idiomaticity의 정도가 개별 phrasal verb에 따라 여려가지로 다르고 non-idiomaticity와의 한계도 분명치가 않는 점이다.

OALD의 서론 부분에는 The waiter went over to a cupboard. 에서 go와 over는 각각 “이동”과 “방향”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에 go over는 phrasal verb가 아니며, Do you mind going over my maths homework? 에서의 go over가 phrasal verb인 것은 go over가 “이동”과 “방향”의 뜻의 총화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다. 그런데 OALD가 phrasal verb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live with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live with: (1) live in the same house
(2) live as if married

idiomaticity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live in the same house 란 의미를 갖는 (1)의 live with가 과연 phrasal verb일까의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Phrasal verb의 전문 사전인 LDPV를 보면 live with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있다.

7) LDCE가 decide on을 phrasal verb에서 제외시킨 것은 decide on이 의미상 on을 필요로 할 뿐 decide의 의미를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phrasal verb의 특성의 하나인 idiomaticity와는 거리가 있다는데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자동사인 decide가 on과 결합해서 수동형을 만들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decide on 은 phrasal verb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도 하다. LDCE를 제외한 여러 사전 (OALD, LDPV, ODCIE)은 모두 decide on이나 rely on을 phrasal verb로 다루고 있다.

live with: 1. to share a living place with...

* 2. to live with as if married

((3)이하는 생략)

이 기술에서 특기할 점은 (2)에 별표가 붙어 있는 점이다. 이 별표는 live with가 (2)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는 phrasal verb라는 표시이다. LDPV는 live with가 지니는 의미를 일단 빠짐없이 기술하면서도 별표의 유무로 live with가 phrasal verb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가려서 제시하는 자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⁸⁾

한편 LDCE에 나오는 live with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live with: to live in the same house as in a sexual relationship, but without being married

다음에서는 기타 어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다.

Sad란 형용사가 있다.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어느 사전이나 sad는 적어도 (1)feeling sorrow (2)causing sorrow란 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나와 있다. Feeling sadness란 의미를 가질 때 sad는 가령 I am sad. 처럼 경험자적(experiencer)을 주어로 삼고 causing sorrow란 뜻을 가질 때는 The movie was sad. 등의 예가 그런 것처럼 자극(stimulus)을 주어로 삼는다. 흔히 과거분사에서 파생한 형용사형은 surprised가 그러듯이 experiencer를 주어로 삼아 문장을 만들고, 현재분사에서 파생한 형용사들은 surprising이 그러듯이 stimulus를 주어로 삼아 문장을 만든다. 그런데 delight의 파생형의 경우는 역시 -ed형인 delighted가 experiencer를 주어로 삼지만 stimulus를 주어로 삼는 파생어는 delighting이 아니라 delightful⁹⁾이다. 그런가하면 regret의 파생어의 경

8) Verb+ adverb 또는 verb + preposition 이 나타내는 의미의 idiomaticity를 별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LDPV의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면 ODCIE는 각기 phrasal verb와 co-occur할 수 있는 대표적 주어와 목적어의 예를 들어 phrasal verb의 의미를 한결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ODCIE는 stimulate란 의미로 쓰이는 turn on의 경우 그 주어가 될 수 있는 대표적 명사는 singer, actor; girl; music, drug이며, go to sb or sth for help, advice, information etc.의 의미로 쓰이는 turn to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대표적 명사는 father, teacher, priest; dictionary, guide, calendar 임을 명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한사전은 phrasal verb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미풀이와 약간의 예문제시에 그치고 있다.

9) 우리나라의 영한 사전에는 delightful이 그저 "매우 기쁜, 즐거운"으로 풀이되어 있어 experiencer를 주어로 할 수 있는 통사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학습자를 오해하게 만들기가 쉽다.

우는 *regretful*이 experiencer를 주어로 삼고 stimulus를 주어로 삼는 경우는 *regrettable*이 쓰인다. 그런데 똑같은 *-able*로 끝나는 irritate의 파생어인 *irritable*은 experiencer를 주어로 삼는다.

*pity*의 파생어로는 *piteous*, *pitiable*, *pitiful*등이 있다. 이런 파생어는 각각 experiencer와 stimulus의 어느 쪽을 주어로 삼는 것일까?

LDCE의 초판과 개정판 및 OALD는 특히 이 형용사들의 특성의 기술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LDCE¹

piteous: (1) *causing* pity (2) *feeling* or showing pity

pitiable: worthy of pity

pitiful: (1) *causing* or deserving pity (2) (old use) *feeling* or showing pity

LDCE¹은 이런 설명 다음에 나오는 USAGE란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부연하고도 있다.

It is probably best to use *piteous* to mean 'feeling pity', *pitiable* to mean 'causing pity', and *pitiful* to mean 'shameful' ; but they can each express more than one of these meanings.

그런데 상대적으로 문법내용이 더욱 강화된 LDCE에서는 이 USAGE란에 나와 있던 설명은 삭제되었고, 이 세 형용사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piteous: (expressing suffering in a sad way) so that one feels pity

pitiful: *causing* pity

pitiable: *pitiful*

다음은 OALD의 설명이다.

piteous: *arousing* or deserving pity

pitiable: deserving or *arousing* pity

pitiful: *arousing* pity

*Piteous*를 포함해서 이 파생형용사들은 experiencer를 주어로 삼는 통사적 특성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일까.

다음은 Could, Could의 용법과 관련해서 LDCE의 could의 USAGE란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비슷한 취지의 설명은 LDCE¹에도 나오지만 LDCE는 그 설명이 더 다듬어져 있다.)

When talking about the past, *could* can be used when we want only to say that someone had the ability or power. eg. She could play the piano when she was five. To express the idea of having the ability to do something and then doing it, you can use *manage to*(=try, then succeed) or *be able to*(more formal): eg. I managed to/ was able to get the tickets. *succeed in*, which is followed by *v-ing*, has the same meaning but is rather formal.

우리 나라의 영어교실에서는 가령 *so... that...*의 용법과 관련해서 He studied so hard that he could pass the examination.과 같은 예문이 흔히 쓰이는데 이 예문에서의 *could*는 *passed*나 또는 *managed to.../was able to.../succeeded in...*으로 바뀌어져야 마땅한 것이다. 특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능력의 실현을 나타내는데 문법적으로 옳지않는 *could*가 우리 나라의 영어교실에서 흔히 쓰이는 것은 문법책에도 이와 같은 *could*의 용법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LDCE에 나와 있는 *could*의 설명은 쓸모가 있다. OALD에는 이런 *could*의 용법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¹⁰⁾

다음은 I'll(이란 축약형).

Quirk *et al.* (1985)을 펼쳐보면 I'll은 I will의 contracted form 이라는 설명이 여러 군데 반복해서 나온다. 그런데 Quirk가 감수를 했다는 LDCE¹⁾에는 I'll이 *contra. of I will, I shall*로 설명되어 있고 LDCE에는 *short for I will or I shall*이라 설명되고 있다.

반면에 OALD는 I'll을 contracted form of I will이라고 못박고 있다.

다음은 *even though vs. even if*의 문제.

10) 이 실현성과 관련된 "could"이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문법에서 어쩌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조동사의 용법에 *used to vs. would*가 있다. 과거의 습관 또는 반복된 동작을 나타내는 *used to*와 *would*는 co-occur할 수 있는 본동사, 주어의 선택, 과거의 시간폭등 여러가지 용법차이가 있는데도, 교단에서는 흔히 그저 기계적으로 과거의 습관의 "규칙성"의 차이로 설명되고 있다. 이 *used to*와 *would*의 용법의 차이가 사전에서라도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기계적인 쓸모없는 설명이 지양될 수도 있을 터인데, *used to*와 *would*의 차이에 관해서는 영영사전도 별로 다루지를 않고 있다.그런대로 LDCE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Used to and *would* are both used of habits or states that existed in the past and have now ceased, but *would* is not used at the beginning of a story.

eg. We *used to* swim every day when we were children. We *would* run down to the lake and jump in...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문법에서는 even though...와 even if...는 그 의미나 용법이 같은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사전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 영한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Even though = Even if

LDCE¹에도 다음과 같은 예문이 나와 있다.

Even if you don't like wine (=though you may not like wine), try a glass of this!

그러나 even though...와 even if ...는 그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Quirk *et al.* (1985)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Even though you dislike ancient monuments, Warwick is worth a visit.

Even if you dislike ancient monuments, Warwick is worth a visit.

Whereas the even though clause presupposes 'you dislike ancient monuments', the even if clause leaves open whether this is so or not.

이와 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even though...와 even if...는 서로 바꾸어 써도 좋다고 기계적으로 가르친다면, 영어학습자는 다음 (1-2)와 같은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1. (?) *Even if* Seoul is a very old city, it doesn't have many old buildings.
2. (?) *Even though* you win one million dollars, you won't be happy.

(1)이 어색한 것은 Even if가 사용됨으로써 'Seoul is a very old city'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하나의 "가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며, (2)가 어색한 것은 'You win one million dollars'란 실현성이 회박한 하나의 가정이 사실을 전제로 하는 even though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even though...와 even if ...를 그저 똑같은 의미로 설명했던 것이 LDCE¹이었다면, 개정판인 LDCE에서는 even though와 even if가 각각 다음과 같이 달리 설명되어 있다.

even if: no matter if

eg. Even if we could afford it, we wouldn't go abroad for our holidays.

even though: though

eg. *Even though* it was raining, we had to go out.

다음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it*의 용법에 관해서 언급해본다.

영어에는 *it*를 *he/she*와 대립시켜 후자는 사람을 가리키고 전자는 사물을 가리킨다는 엄연한 문법규칙이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다음 (1-3)에서의 *it*는 '사람'을 가리킨다.

1. A: Who is this?

B: *It's* my brother.

2. There's somebody at the door. Go and see who *it* is.

3. Somebody knocked the door impatiently. She went to the door and peered through the key hole. *It* was a policeman.

실상 사람을 가리키는 *it*는 *it*가 갖는 극히 일상적인 용법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it*는 *he/she*와는 엄연히 다르다. *It*는 어떠한 경우에 사람을 가리키며 사람을 가리키는 *it*와 *he/she*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It*는 형식주어와 비인칭주어로 쓰이는 등 그 문법적 기능이 다양해서 영어사전에는 어김없이 그 다양한 기능이 일단은 설명이 되어있다. 그러나 유독 사람을 가리키는 *it*의 설명은 석연치가 않다.¹¹⁾

모 영한사전에는 (1-3)과 관련된 *it*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1. *It*는 심중에 있거나 문제로 되어 있는 사람, 물건, 사정, 행동등을 가리킨다.

이 모 영한사전은 (1)과 같은 설명과 함께 예문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2. Go and see who *it* is.

3. *It's* me.

4. *It* says in the Bible that ...

(알고보면 이 모 영한사전에 나오는 (1)과 예문 (2-4)는 일본의 연구사(研究社)의 *Kenkyusha's New English-Japanese Dictionary*에 나오는 해당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놓은 것인데) (2-3)의 *it*와 (4)의 *it*를 동일한 용법으로 묶고 있는 것부터가 "사람을 가리키는 *it*"를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의 "심중에 있거나 문제로 되어있는 사람, 물건, 사정, 행동 등을 가리킨다"는 설명 역시 *it*가 쓰이는 구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데 명쾌하

11) (흔히 학교문법은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it*는 "주어의 성(sex)이 분명치 않을 때" 쓰인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으로는 당장 앞에 인용한 예문(3)을 설명할 수 없다.

지는 못하다.

이 It가 LDCE, OALD, CELD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

LDCE에는 다음 예문과 함께 it가 그저 that person으로 풀이되고 있다.

It's the postman.

이 설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it가 의미나 기능에 있어 that person과 똑 같다는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OALD에서는 it는 used to identify a person이라 설명이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예문이 보인다.

1. *It's the milkman.*
2. *It's Peter on the phone.*
3. *Was it you who put these books on my desk?*

그런데 it가 신원(분)을 밝히는데 쓰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례로 *I am John./He is my brother./She is a nurse.* 등의 문장도 신원(분)을 밝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he나 she 또는 I를 주어로 삼는 문장과 it를 주어로 삼는 identifying sentence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가 필경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부연적 설명없이 OALD의 used to identify a person이란 설명만으로는 이 문제를 밝혀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used to identify a person이란 풀이의 예문의 하나로 든 (3)은 *It ... that (who)...*의 frame을 이용한 분열문(Cleft Sentence) 또는 강조구문으로 설명 못할 것이 없다.

다음은 CELD에 나와 있는 it의 설명이다.

You use *it* when you are telling someone who you are, or asking them who they are, especially at the beginning of a phone call. You also use *it* in statements and questions about the identity of other people.

eg. Who's there? Oh, it's you.

Who was that you were speaking to? It was only the post man.

이 설명 역시 “전화통화등에서 먼저 자기를 밝히고 상대방이 누구지를 묻는 경우 it가 쓰인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곁들어 있지만, 그 밖에는 OALD의 used to identify a person이란 설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You are telling someone who you are”이란 상황에서 it가 쓰인다지만 (전화통화시 말고 또 어떤 경우에) *I am ...*을 쓰지 않고 *It is..*를 쓰

는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12)

12) 그런데 이와 같은 *it*의 용법 설명은 역시 (lexicographer에 앞서) grammarian이 맡아야 할 일 일 것이다.

문법학자들은 이 *it*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Curme, Zandvoort, Jespersen의 설명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Curme은 *it*의 용법의 하나로 'Situation It'란 범주를 설정하고 문제의 *it*를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eg. *It is John.* (words spoken upon hearing footstep in the hall)
It (the distance) is ten miles to the nearest town.

John came home late; *it* provoked his father.

이런 설명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it*의 개념이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이해될 것까지는 않다. 다음은 Zandvoort로부터의 인용이다.

eg. Go and see who *it* is who rings. —*It is John and Mary.*

My bag was carried for me by a man I am sure I must have seen before.

I wonder if *it* was James, our old gardener.

In such cases both pronoun and verb refer to an image seen, a sound heard, a smell perceived, in short some sensory perception.

To predicate something about persons as such "he", "she" or "they" is used.

eg. Mrs. Clemnt is a neighbour of ours. *She* is a very nice woman.

Zandvoort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It*는 아주 잠시동안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지각된 대상의 이름이나 신원을 밝힐 때 쓰이며, *he, she*등은 술부가 predicate의 기능을 갖는 문맥에서 주어로 쓰인다는 것이다.

Zandvoort의 설명은 다음 (1)에서 (a)는 어쨌든 (b)에서는 *it*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데, 역시 "아주 잠시동안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지각된 대상의 이름을 밝히는데"라는 설명은 궁색해 보이고 다음 (2-3)의 *it*를 적절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2)에서 쓰인 *it*는 문맥상 "(감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지각할 때"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며 (3)의 B는 *it*를 써도 좋고 *he*를 써도 좋은 것이다.

1. a. A: There's someone at the door.

B: Who is *it*?

b. A: There's someone at the door.

B: What is *he/* it* like?

2. Who is your best friend? Is *it* the boy you go to school with everyday?

3. A: Who's that boy?

B: *It's/He's* my brother.

Jespersen은 어떨까? Jespersen은 저 방대한 7권의 *A Modern English Grammar*를 썼으면서도 사람을 가리키는 *it*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____ + BE + Human Noun의 구문과 관련해서 이 문장이 이른바 cleft sentence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즉 그 다음에 *that/ who*가 이끄는 절을 연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에 *he*가 쓰이지 *it*가 쓰이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MEG, VII)

Cleft sentence에서야 *It + be + ____ that...*의 frame에서 *It + be* 다음에 얼마든지 *he*나 *she*를 쓸 수 있어, Jespersen의 이와 같은 언급은 주어로 쓰인 *it* 다음에 사람이 보iero 쓰일 수도 있는 문법사실을 간명하게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점을 지적하자면 cleft sentence쪽에 초점을 맞출 때 아무 문법책에도 cleft sentence에서의 *that*절의 생략에 대한 조건이나 제약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이 있다.

부사와 형용사의 통사상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언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특히 부사의 경우가 그렇지만) CELD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사의 용례를 들어보자.

1. a. He is in need of money *badly*.
- b. The barber cut your hair *badly*.

(1)에서 (a)는 He is badly in need of money.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b)는 badly를 the barber 다음으로 옮길 수 없다. 말할 것없이 (1)의 (a)와 (b)의 badly의 의미나 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1)(a)의 badly는 *emphasizer*이고 (b)의 badly는 *adjunct*(또는 *adverb of manner*)이다.)

2. a. Well, *personally*, I feel that this is very difficult.
- b. I wasn't referring to you personally but to the department as a whole.

이 it의 용법에 대해서 참고가 될만한 논문은 Declerck (1983)이다. It의 용법의 설명에서 유의할 점은 역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는 구실을 할 수 있는 he/ she와 it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Declerck에 의하면 다음 질문 A에 대해서 (B.1)은 A가 B의 friend에 대해서 전연 지식이 없는 경우에 쓰이고 (B.2)는 개체확인(은 끝난 상태에서 보충적 확인)의 구실을 한다. Declerck는 (1)의 기능을 "개체확인적 신분확인" (specificationally identifying) 이라고 불러 (2)의 "기술적 신분확인" (descriptionally identifying) 과 대비시키고 있다.

A: Who is your friend?

B: (1) *It* is the son of the prime minister.

 (2) *He* is the son of the prime minister.

필자는 나름대로 사람을 가리키는 it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해본다.

(1) 영어에서는 사람을 소개하는 등 신원을 밝히는 문장에 한해서 *this* 와 *that*를 주어로 쓸 수 있다. It는 *this*와 *that*를 주어로 삼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묻는 의문문에서 *that*를 대신한다.

eg. 1. Who is *that*?

 2. *That's* (=It's) my mother.

(2) 그 밖에 it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할 상황 (이 상황이 의미상 바로 Jespersen이 말하는 cleft sentence에서의 생략된 *that*절에 해당한다)을 전제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거나 누구인가를 밝히는 최초의 문장에서 쓰인다.

eg. 3. There's somebody at the door. Go and see who *it* is.

4. Somebody knocked the door impatiently. She went to the door and peered through the window. *It* was a policeman.

다음 (5-6)에서는 (5)의 경우 이 문장이 the man in the photography가 화제에 오른 최초의 문장이라면 빈칸에는 it가 알맞다. 반면 (6)의 빈칸에는 He가 알맞다. A Russian이란 설명이 신원을 밝히는 일차적 기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5. I know the man in the photograph. ___is John.

6. Who is Mr Karensky? ___ is a Russian.

(2)에서는 (a)의 personally는 "to give my own opinion"이란 뜻을 갖는 disjunct (또는 sentence adverb)이고 (b)의 personally는 refer to you에 걸리는 adjunct이다.

- 3. a. Tina was crying, so naturally Hanna was upset.
- b. Some of the men will die naturally at sixty five.

(a)의 naturally는 disjunct이고 (b)의 naturally는 adjunct이다.

- 4. a. On small income they live simply.
- b. We simply cannot condone violence as a way of changing the situation.

(a)의 simply는 adjunct이지만 (b)의 simply는 emphasizer이다.

이와 같은 용법의 차이는 약간의 수준이 높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책에 나와 있고, 부사가 갖는 복수의 의미는 말할것 없이 사전에 나와 있다. 하지만 하나의 부사가 의미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용법에서도 다양하게 쓰이며, 문법책에 나와 있는 약간의 예를 곁들인 설명만 갖고는 다양한 부사의 어법과 기능을 유추해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 동사의 통사상 특성이나 명사의 가산성처럼 부사의 기능도 부사마다 개별적으로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면 학습자에게는 큰 도움이 됨직하다. 이런 사전이 CELD이다.

CELD에는 개별부사마다 그 용법과 통사상의 특성이 다음 네가지로 구분되어 기술되고 있다.

- (1) Adv (2) Adv+ adj /adv (3) Adv afer VB (4) Adv Sen (5) Adv with VB

형용사에 관해서는 CELD나 LDCE, OALD이 다 형용사의 통사상 특성을 여러가지로 분류하여 이를 기호나 약자로 바꾸어 형용사마다 일일히 표시하고 있는데 LDCE와 CELD의 기술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LDCE

- [A] 한정적용법(attributive use)만 갖는 것
- [F] 서술적용법(predicative use)만 갖는 것
- [after n] 명사 다음에서 쓰이는 것
- [also n, the + p] the와 결합해서 복수명사를 만드는 것
- [no comp]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수 없는 것

그밖에 개별 형용사가 흔히 수반하는 전치사와 개별 형용사가 만드는 문형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in / about / with...), (+ to V/ + that)]

(2) *CELD*

- Adj afer N: 명사 다음에 쓰이는 것
- Adj classif: (=classifying adjective) very등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형용사
- adj color: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 adj qualit: (= qualitative adjective) very등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
- attr: attributive use만 갖는 형용사
- pred: predicative use만 갖는 형용사
- comp.: 비교와 관련된 정보

대체적으로 문형을 전제로 하는 통사상 특성의 기술에 있어서는 (동사의 경우도 그렇지만) *CELD*는 *LDCE*만큼 자상하지 못하다.

그런데 attributive use와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LDCE*가 문법책에 흔히 나오는 utter, sheer,..등 아주 한정된 것에만 [A]표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CELD*는 a beautiful girl과 대립되는 a beautiful tennis player의 beautiful, a good school과 대립하는 a good mood, a good nature, his good arm, take good care에서 쓰인 good 하나 하나에 각각 attr의 표시를 달고 있다.

*OALD*는 형용사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attrib(utive use)와 pred(icative use)의 표시만을 하고 있다. Beautiful에 관해서는 특기할만한 문법상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극히 일상적인 good(등)에 관해서는 가령 my good suit, a good laugh 의 good에는 attrib가, He's very good with children (= can look after them well)의 good에는 pred가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사전이 문법사항을 다루지 않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도 안되지만, 문법사항을 다루는 경우는 문법사항이 다양할수록 어쩔 수 없이 앞에서도 언급했던 exhaustiveness가 문제가 된다.

부사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LDCE*나 *OALD*는 부사의 문법성 특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차라리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CELD*의 경우는 exhaustiveness란 관점에서 역시 여기 저기 걸리는 데가 눈에 띄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Quirk et al. (1985)를 보면 이른바 문장부사의 일부인 style disjunct로 다음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a)에 속하는 것은 *CELD*에도 (*sen adv*라는 기호로) 명시되어 있지만 (b)에 속하는 부사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sen adv*의 표시는 없다.

(a) frankly, candidly, honestly, seriously, strictly, truly, confidentially, briefly, broadly, generally, simply

(b) flatly, truthfully, privately, approximately, bluntly, crudely, roughly

(3) Pragmatics /Discourse등과 관련시켜

*LDCE*¹과 비교했을 때, *LDCE*가 크게 달라진 것중의 하나는 (pragmatics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상의 정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인데 이 크게 늘어난 문법상의 정보는 우선 어법해설란(Usage)의 증보를 통해서 반영되어 있다. 즉 필요에 따라 해당 어휘 항목 다음에 기술되어 있는 Usage란을 보면 *LDCE*¹에는 문법과 관련된 것으로 can과 may의 차이, could의 용법, between과 among의 차이, 동의어와 관련된 것으로 street, road, way; win, earn, gain의 의미차이등이 나와있고 그밖에 knife and fork, here and now, north and south등과 같은 고정된 어순, 흔히 반의어로 일컬어지는 moral과 immoral의 의미관계의 설명등도 보인다.

그런데 *LDCE*에는 하나의 단적인 예로 way항에 나오는 Usage란에 *LDCE*¹를 포함하는 다른 사전에 그저 “말이 난 김에”로 풀이되고 있는 by the way가 (pragmatics 내지 discourse란 새로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By the way: although the expression seems to suggest that you are going to add unimportant information, in fact, it is often used to indicate a subject really very important to you.

eg. By the way, do you think you could lend me £ 10?

By the way에 관한 이런 설명은 *OALD*나 *CELD*에는 보이지 않는다. *LDCE*에는 certainly도 다음과 같은 USAGE note가 붙어있다.

certainly: *Certainly* is often used when there is some doubt left in the speaker's mind.

eg. It's *certainly* very beautiful, but it's far too expensive.

이런 설명도 *OALD*나 *CELD*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CELD*에는 *LDCE*나 *OALD*에 없는 *Certainly not*와 관련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You say *Certainly not* when you want to say "no" in a strong way, usually in answer to a question and after showing that you are rather annoyed by the question.

eg. "Had you forgotten?" "*Certainly not.*"

실상 pragmatics나 discourse란 관점에서 볼때 (LDCE의 USAGE에 나와 있는 있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만 알고는 적절한 활용을 할 수 없는 discourse지향적인 어구의 설명은 LDCE나 OALD보다 CELD가 상대적으로 나아보인다. CELD는 그와 같은 어구가 쓰이는 구체적인 문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맥을 통한 어휘의 설명은 CELD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룬다.)¹³⁾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So what?

You say "*So what?*" to indicate that the remark or statement which has just been made seems unimportant, uninteresting or irrelevant to you.

eg. "Someone will see." "*So what?*"

You bet.

You use "*You bet*" as an emphatic way of saying yes or a way of emphasizing a statement.

eg. "Are you going to go?" "*You bet!*"

Not that I know of:

When someone has asked you whether or not something is true and you think the answer is 'no' but you cannot be sure because you do not know all the facts.

You never know:

To say that it is not definite or certain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and to suggest that there is some hope that things will turn out well.

eg. Well, I can't promise, but you *never know*.

You are telling me.

If you say "*You are telling me*", you are emphasizing that you already know and

13) 낱말의 의미를 문맥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징말고도, 하나의 낱말이 복수의 의미로 쓰일 때 품사를 따로 하위구분하지 않고 사용 빈도별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 역시 CELD의 중요한 특색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CELD가 computer를 이용해서 사전편찬의 data를 수집하고 그 사용빈도를 밝힌 노력을 가시화시키려는 시도인데, 그 시도가 획기적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역시 낱말의 의미는 사용 빈도별로 제시하되, 품사는 일단 분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agree with something that someone has just told you.

I told you so.

If someone disagrees with you or refuses to do what you suggest and you are eventually proved to be right, you can say *I told you so*.

LDCE의 경우 (LDCE¹에는 없었던 것으로) 여러 문법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된 또 하나의 항목은 Language Notes이다. 이 Language Notes에 대한 LDCE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The *Language Notes* give detailed treatment of a number of key areas of language use. They deal with points of grammar, style and especially pragmatics.

즉 addressing people, criticism and praise, invitations and offers, questions and requests, thanks 등의 화행(speech acts)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언어사용의 장에서의 여러가지 표현, 관사 및 구동사와 관련된 문법사항, make 와 do의 의미차이등 어휘와 문법을 접근시킨 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Language Notes이다.

III.

—결론을 대신해서

이상 살펴보았듯이 문법상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전은 단단히 한몫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던 사전들은 오늘날의 사전은 낱말의 철자나 발음을 점검하고 그 의미를 깨우치는데 쓰여왔던 전통적인 효용에 덧붙여 “말하기”와 “쓰기”를 능률적으로 익히는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보이고 있다.

그러나 끝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전에 나오는 개별어휘 중심의 문법정보는 문법서에 나오는 일반화된 규칙과 상보상조적 구실을 하는 것이지 문법서에 나오는 일반화된 규칙의 복사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금 앞에서 언급했던 바 LDCE의 Language Notes가 다루고 있는 “인사”, “비난과 칭찬”, “초대와 제의”등 언어의 기능 내지 화행과 관련된 사항은 적어도 (학교)문법이 이른바 전통문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위한 활용(communicative competence)을 지향한다면 사전에 앞서 문법서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LDCE에 나와 있

는 Language Notes의 상당부분은 문법서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학교문법이 전통문법적 태두리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eech and Svartvik (1978)와 같은 시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시도가 학교문법의 영역에서 정착이 되고 communicative grammar가 학교문법의 중심이 된다면 그 때는 사전이 좀 더 discourse나 pragmatics의 문제를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심화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보았던 사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영어 학습자들에 의해서 애용되고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에 오른 학습자들이 아니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상당한 수준에 오른 학습자들도 영영사전보다는 영한사전에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당장에 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영한(학습)사전의 체질개선이다.

그럴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던 영영사전들의 장점과 약점 또는 문제점은 체질개선의 방향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되풀이가 되지만 사전의 효용이 결코 낱말의 의미나 거기에 덧붙여 발음이나 철자를 확인하는데 그칠 수는 없다. 앞으로의 영한사전은 “읽기”뿐만 아니라 “말하기”나 “쓰기”에 능동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말하기”나 “쓰기”에 도움이 되는 문법사항을 어휘별로 제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기술이 얼마나 정확 정연하며 exhaustive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문법사항이 사전에 많이 반영되면 반영될 수록 배가한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고 사전에 반영할 문법사항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볼 때 체질개선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영한사전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개별 동사가 만드는 동사형과 명사의 가산성 및 phrasal verb의 통사상 특성 그리고 pragmatics 및 discourse를 관점으로 삼은 어구 및 문장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¹⁴⁾

참 고 문 헌

- Cowie, A.P. 1981. Lexicography and its Pedagogic Applications: An Introduction . *Applied Linguistics*. II, 3.
 Curme, G.O. 1946. *Principles and Practice of English Grammar*

14) 여기에 덧붙여 영한사전이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영한어휘대조분석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일단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Declerck, R. 1983. 'It is Mr. Y' or 'He is Mr. Y' ?. *Lingua* 59.
- Dubois, J. 1981. Models of the Dictionary: Evolution in Dictionary Design. *Applied Linguistics*. II. 3.
- Hartmann, R. 1981. Dictionaries, Learners, Users: Some Issues in Lexicography. *Applied Linguistics*. II. 3.
- Heath, D. and Herbst, T. 1988. Reviews: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new edition). *ELT Journal* .42.4
- Jackson, H. 1988. *Words And Their Meaning*. (chapters 11-13). Longman.
- Jespersen, O. 1958.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7.
- Leech, G. and Svartvik, J. 1973.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gman.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 Thompson, G. 1987. Using Bilingual Dictionaries. *ELT Journal*. 41.4
- Tomaszczyk, J. 1981. Issues and Developments in Bilingual Pedagogical Lexicography. *Applied Linguistics*. II. 3.
- Zandvoort, R.W. 1964.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 岩崎研究会(1981) 英語辭典の比較と分析, 第4集, 研究社

Dictionaries:

-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1987. Collins.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1978, 1987. Longman
-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 1983. Longman
-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1974, 1989. O. U. P.
-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 1975. O. U. P.

Abstract

Comparing English Learner's Dictionaries

MOON, Yong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three English dictionaries in terms of pedagogical usefulness of grammatical information they provide. These three dictionaries are: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1978, 1987),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1974, 1989), and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1987).

Designed for learn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hey share the view that grammar should be one of the essential ingredients of a dictionary. They also assume that dictionaries, particularly for the learn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should be a resource not only for comprehension but also for production.

The comparison reveals that each of these dictionaries has its own merits and weaknesses.

It is pointed out that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case a dictionary proposes to provide grammatical information, would be to decide what to include and what to exclude on one hand and how to ensure accuracy, consistency and exhaustiveness on the other.